

반 구절 계송 들으려 천개의 상처를 내다

불전속 신이한 이야기(39)

전륜왕의 공덕

전륜성왕이 부처님의 법을 구하기 위해 염부제에 두루 물었다.

“누가 부처님 법을 아느냐? 대전륜왕이 그 법을 얻어서 소중하게 익혀라 한다.”

그러자 모두가 말했다.

“변방의 조그만 나라에 사문이 있는데 부처님의 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은 바로 그를 궁으로 들여 부처님의 법을 청했다. 그러자 사문이 말했다.

“왕은 참으로 어리석으십니다. 저는 부처님의 법을 배우느라 오랫동안 부지런히 노력하며 온갖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그로 인해 비로소 이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께서는 지금 어찌하여 이 자리에서 바로 그 법을 얻어 들으려 하시니까?”

왕이 말했다.

“내가 어찌하면 되는 것이요?”

“저에게 공양을 하십시오.”

“무엇을 공양하면 되겠소?”

“왕의 몸을 깎아 천 군데의 상처를 만들고 거기에 기름을 가득 붓고 등불 심지를 놓아 공양한다면 저는 왕을 위하여 부처님의 법을 설할 것입니다.”

왕은 생각에 빠졌다. 그리고 초소를 돌아가 부인들에게 말했다.

“이제 그대들과는 그만 이별을 해야겠소. 나는 몸을 깎아 천 개의 등불을 만들어 큰 스승에게 공양하려 합니다.”

부인들이 말했다.

“천하에 소중한 것은 자기 몸보다 더한 것이 없거늘 어찌 자신의 몸을 해치려 하시니까?”

“부처의 법을 구하는 것은 일체 중생을 위한 일이요, 어둡고 캄캄한 방에 지혜의 등불을 켜서 그대들이 나고 죽는 광명 없는 캄캄한 곳을 비추어 주려 하는 것이요, 그대들 썩어 있는 많은 번뇌를 끊고 열반에 이를 수 있게 하려 함에서 그리하겠다는 것인데, 그대들은 어찌 나의 마음을 따르지 못하는 것이요?”

왕비들은 슬펐으나 왕의 말에 더 이상 다른 말을 달 수 없었다. 왕은 궁의 모든 이들과 인사를 나누고 법을 청했던 사문에게 들어가 몸에 걸치고 있던 화려한 옷과 장신구를 벗어놓고 몸을 바르게 한 후 대중에게 말했다.

“누가 나를 위하여 내 몸을 깎아 천 군데의 상처를 만들어 주겠소?”

대중들이 한 목소리로 말했다.

“차라리 나의 눈을 뽑을지언정 절대 내 손으로 왕의 몸을 깎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이때 성질이 모질고 포악한 전다라라고 하는 자가 있었는데, 왕의 말을 듣자 바로 나아가 여러 왕비들과 태자들에게 말했다.

“격정하고 괴로워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에게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왕으로 하여금 이 일을 이룰 수 없게 하고, 다시 나라를 다스리면서 본래와 다른없는 왕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할 수 있습

니다.”

왕비들과 태자들은 전다라의 이야기를 듣고 기뻐했다. 다시 전다라가 말했다.

“대왕께서 몸을 깎으려 하신다면, 제가 헤드릴 수 있습니다.”

“너야말로 이제 나의 위없는 도반이로다.”

이때 전다라는 커다란 칼을 왕의 몸에 갖다 대더니 눈 깜짝할 사이에 재빠르게 깎아 천 군데의 상처를 만들었다. 이 정도면 왕도 그만 두고 싶을 거라 생각하고 칼을 던지고 도망쳤다. 그러자 왕은 그 상처마다 기름을 가득 채우고 가는 털실로 심지를 만들어 상처에 심었다. 이때 사문이 왕에게 말했다.

“실로 어려운 공양을 하셨습니다. 부처님의 법을 드리겠습니다.”

이 구도의 마음을 내게 되었다. 왕은 천 개의 등불을 켜서 큰스승께 공양했으며, 그 광명은 멀리 지방세계를 비추었다. 그 등불의 빛 속에서도 역시 음성이 들리면서 이 반 구절의 계송을 말했다. 그 법을 듣는 사람들 모두가 구도의 마음을 낼 수 있었다. 그 광명이 위로 비추어 도리공에까지 이르러 하늘의 광명을 다 가릴 정도였다. 도리천의 왕은 무슨 일이 생긴 것인지 궁금하여 천안으로 세간을 들여다보았다. 사실을 알게 된 도리천의 왕은 몸을 바꾸어 세간으로 내려가 전륜왕에게 물었다.

“이런 어려운 공양을 하여 천왕이나 마왕, 아니면 범왕이라도 되려고 하는 것입니까?”

“나는 그런 것을 구하려 한 것이 아닙니다. 중생을 위하여 보리를 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보리를 구하는 이는 오랫동안 많은 고생을 하



삼화 · 강병호

그리고 사문은 반 구절의 계송을 읊었다.

“무릇 태어남은 곧 죽음에 나아가니 / 이것이 사랍집(滅)이 즐거움이라.”

계송을 들은 왕이 말했다.

“나에게 사랑과 연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 이 법을 기억하고 지녀야 한다. 모든 나라 땅마다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곳이면 어디에나 이 왕명을 널리 퍼 알리라. 모든 사람들이 마땅히 다 알아야 한다. 대전륜왕은 모든 중생들이 괴로움의 바다에서 빠져서 헤어지지 못함을 보고 크게 가엾이 여기는 마음을 일으켜 몸을 깎아 천 개의 등불을 켜서 이 반 구절의 계송을 구하는 것이다. 모든 사람들은 이제 이 계송을 읽고 외우며, 소중히 익히며 그 이치를 생각하여 이 말씀대로 수행을 해야 한다.”

대중은 이구동성으로 대왕을 찬탄했다. 사람들은 이 계송을 종이와 비단에, 돌과 나무에, 기와와 조약돌, 풀잎에까지 사람들이 다니는 곳에 모두 적어놓았다. 그리하여 그것을 보고 듣는 모든 사람들

고서야 비로소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토록 빠른 시간에 그것을 구하려 한 것은 다른 뜻이 있어 서가 아닙니까?”

“설사 뜨거운 쇠 수레바퀴를 나의 정수리 위에서 돌린다 하여도 그 괴로움 때문에 위없는 도를 구하는 마음에서 물러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제가 천왕 제석을 속인 것이라면 내 몸에 난 천 군데의 상처를 끝내 낫지 않게 하셔도 좋습니다. 만약 저의 말이 사실이라면 마땅히 상처의 피가 젖으로 변하고, 천 군데 상처가 모두 아물게 해 주십시오.”

천제석은 큰 광명을 놓아 왕의 몸을 두루 비추었으니, 백천의 모든 하늘이 함께 보리의 마음을 내었다. 왕비와 태자를 비롯해 모든 백성들이 왕의 상처가 본래대로 아무는 것을 보고 한량없는 기쁨으로 보리의 마음을 내었다. <대방편보문경> 제 3권에 나온다.)

동국대역경원 발행 <경률이상>에서 발행 재구성 구성=박재원 기자 wanhollo@hyunbul.com

이대원성 보살의 바라밀 일기 ㉞



마음이 하는 일

명절의 행복

명절 때면 서울에 살고 있는 아들 딸 네 가족이 아이들을 데리고 이 곳 부산으로 온다. 차를 장난임 우리 집에서 지내게 된지는 이미 오래 되었다. 명절마다 지내는 차례와 웃어른들의 제사를 여러 해 모셔왔지만 나는 한 번도 그 일이 힘들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늘 마음을 내서 하는 일하기에 항상 즐겁다.

서울에서 내려온 식구들까지 모두 6남매의 식구들이 차례를 모실 때는 그 모습이 참으로 든든하고 자랑스럽기까지 하다. 그 여러 식구들 중에서 나와 마음이 제일 잘 맞는 사람이 있다. 넷째 시동생이다. 그는 유난히 정이 많고 모든 생활이 모범적이며 정직하고 인내심과 배려심이 깊어서 평소 자랑스럽게 생각해왔다.

내가 시집와서 힘들고 괴로울 때, 그 때마다 말수가 별로 없는 이 시동생의 진심어린 위로와 격려가 큰 힘이 되어주곤 했다.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

마음이란 것이 모습은 없지만 진심이 담긴 따뜻한 마음만은 이심전심으로 서로 통하는 것 같다. 어찌어찌 하다 보니 이제 우리 내외가 집안에서 제일 어른이 되었다. 평소에도 경우 밝은 그는 늘 우리 내외를 어른으로 챙기기 시작했다.

명절에 모인 식구 보며 '행복' 생각 '나' 보다 '너' 를 생각하는 삶 살아야

차례를 지낸 후 시댁에서 차례를 지내고 온 딸 식구들을 포함해서 가족 모두가 둘러앉아 웃음꽃도 하고, 극장에도 가는 등 오랜 만에 많은 식구들이 모여 한가위 분위기를 즐겼다.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모두 돌아가야 할 시간이 되었다. 아이들이 용돈으로 쓰라며 돈봉투를 서로 내밀었다. 아이들이 잘 키워져 기쁘고 대견한 마음이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아이들이 큰 만큼 우리 내외가 늙었다는 생각에 조금은 서글퍼지기도 했다. 아이들이 모두 떠나고 나니 우리 내외만 덩그러니 남게 되었다. 동서들과 함께 북적거리며 음식을 준비하던 주방도 썰렁했다.

평소보다 많이 나와 있는 수저들과 그릇들을 보니 많은 생각이 들었다. '식구'에 대한 생각을 세심스럽게 하게 됐다. 식구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떠올리니 입가에 미소가 스민다.

제법 늙은 티가 나기 시작한 내외들과 하루가 다르게 쑥쑥 자라고 있는 손주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모두가 아프지 말고 외롭지 말고 슬프지 말고 늘 즐겁고 행복할 일만 있기를 기도했다.

명절은 식구들이 모일 수 있고 식구들 생각을 하게 되어 좋은 것 같다. 우리 집뿐만 아니라 모든 가정의 행복하기를 아울러 기도했다. 가정마다 행복

이 넘친다면 우리 사는 세상의 괴로움이 모두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했다. 그것이 부처님 공부하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했다.

생활 속의 수행

살다보면 언제나 '나' 를 우선으로 생각하고 살아가게 마련이다.

그래서 생각해 본 것인데, 나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면서 '나' 라는 말을 가장 많이 쓰는 것 같다. 좋은 일에도 좋지 못한 일에도 누구나 말을 할 때면 어김없이 '나' 로 시작한다.

어쩌면 '나' 라는 말에 갇혀서 생각도 '나' 에 갇힐 수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렇게 살면서도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바르든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이 그로 인한 것일 수도 있을 수 있다.

어항 속의 물고기를 보면서 물고기의 심정을 알 수가 없고, 나무를 키우면서 나무의 심정을 알 수가 없는 것이 바로 그것 때문이 아닐까.

인간이 어항 속의 물고기나 숲 속의 나무들과 이야기할 수 없고, 인간들끼리도 서로 소통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그 이유 때문이 아닐까.

그래서 나는 새로운 원을 하나 세웠다. '나' 에서 조금 멀어지는 일을 조금씩 해보려고 한다.

수행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닐까. 내가 '나' 에서 멀어지는 일. 그렇게 '나' 에서 멀어지면 '나' 를 더 제대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하면 늘 새로운 나와 만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나' 가 새로워지다 보면 '나' 보다 '너' 를 위주로 생각하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과거에 도 오늘과 같이 우리들의 조상들이 살아 있었고, 또 내가 없는 먼 훗날에도 우리들의 후손들이 살아가고 있을 이 세상이다.

세월은 나이가 없고 우린 나이를 먹고 죽어간다. 이토록 끊임없이 흘러가는 세상이 부처님 말씀대로 흘러갈 수 있으려면 지금의 우리부터 조금씩이라도 '나' 에서 멀어지는 연습을 해야 할 것 같다. 그것은 곧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못하고, 귀에 들리는 것만 듣지 말아야 할 것이다.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도 볼 수 있어야 하고, 귀로 들을 수 없는 것도 들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결국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마음' 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을 볼 수 있게 되고, 귀로 들을 수 없었던 것들을 하나하나 들을 수 있게 된다면 우리는 좀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우리가 알면서도 할 수 없었던 것들을 할 수 있고 가질 수 있지 않을까.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는 마음들을 알게 되고 가질 수 있을 것 같다. '용서', '위로', '사랑' 등 우리가 나누기 힘든 것들을 좀 더 많이 나눠가질 수 있을 것 같다.

부산 연꽃모임장

since1973

2014년 불교달력 특별가격

동진기획 · 붓다쇼핑 (051) 515-8888

www.buddhashopping.com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송정리 364-2 TEL.(051)515-2988, 555-1087, 508-9377~8 FAX.(051)508-0101 인터넷전화. 070-7425-0518 H.P 011-554-2988



• 12절(소)달력 3,000부 이상 @ 800 원
2,000부 이상 @ 900 원
• 200부 이상 @ 1,000 원
• 규격 : 25.8cm × 26.5cm

• 한지달력 200부 이상 @ 1,500 원
• 100부 180,000 원
• 규격 : 30cm × 63cm ★국판3절
• 매수 : 13장
• 전통 인견한지 달력입니다.

• 탁상달력 200부 이상 @ 1,500 원
• 100부 180,000 원
• 규격 : 26cm × 19cm
• 탁상용 달력중 가장 큰사이즈

• 수첩달력 200부 이상 @ 650 원
• 2000부 @ 600 원 • 100부 @ 800 원
• 규격: 9.5cm × 13.4cm • 매수: 18장
• 미니달력 200부 이상 @ 450 원
• 2000부 @ 400 원 • 100부 @ 600 원
• 규격: 8.9cm × 9.5cm • 매수: 16장